

도시가계의 저축률 변화에 관한 연구*

Trends in the Saving Rates of Urban Households

한양대학교 소비자 가족전공

석사 유경아

교수 임정빈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tudies, Hanyang University

Master: Yoo, Kyung-Ah

Prof.: Im, Jeong-B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saving rates in households (1982-1998). That has increased approximately 50% in all classes and have changed in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price indices and economic situation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age and number of family members were the variables which show the differences in saving rates.

I. 서론

가계의 소비지출은 소득에 의해 가능하며, 소비지출 행위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항상 소비지출 수준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가계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하고, 예

측가능한 지출과 예측불가능한 지출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가계저축이며, 가계는 저축을 통해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실현하고 재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가계의 재정상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IMF 구제금융 등의 경제상황에 따라 심한 기복

* 이 논문은 1999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을 보이며(한국개발연구, 1997; 박명호, 1998), 가계저축은 가족의 성장 발달과 정치, 경제, 사회 등 외적인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가계의 저축형태, 금융시장, 금융상품 등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가계특성 변인에 따라 저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가계의 재정상태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가계저축에 관한 연구는 횡단적인 측면에서의 저축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계특성을 고려하지는 하였으나 경기변동에 따른 저축률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가계저축률을 분석한 연구(조재호, 1995; 홍승제, 1997)에서는 연도별 저축률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가계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가계의 저축행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8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고, 가계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등 각 변인에 따른 가계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금전관리, 가계저축을 위한 교육 및 상담자료가 될 수 있고, 저축상품개발 및 저축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고찰

1. 저축의 개념

가계소득은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소비와 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저축은 일정기간 동안을 실물경제 활동 결과로 얻어진 소득 또는 생산액 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만큼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말한다. 그러나 소득과 소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축은 그 개념과 측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대의 가계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계저축이

라고 하면, 일정기간동안 가계의 가처분소득 또는 생산액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잔여부분을 말하며, 결국 가계저축과 가계투자를 같은 의미로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첫째는 저축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잔여분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순자산의 증가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각 저축을 실제로 측정할 때는 소득과 저축에 대한 통계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통계보다 오차가 작고 용이하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양은진, 1998; 이정현, 1994; 고정훈, 1993; 김인숙, 1993) 저축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잔여분의 개념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잔여분의 개념을 저축으로 규정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저축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저축관련 이론

저축은 소비되지 않는 소득의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소득은 저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저축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과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을 고찰하여 저축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 두 가설은 소득을 측정할 때 현재소득보다는 일생을 통한 총소득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저축과 소비에 초점을 둔다.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기가설은 모두 가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소득변화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저축과 차입을 강조한다. 이 두 가설은 가계가 현재와 미래에 소유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고려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Friedman(1973)은 개인은 현재와 미래에 걸친 소비지출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소득과 미래의 기대소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항상소득가설을 전개하였다. 항상소득가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

되는데, 임시소득은 저축에만 영향을 미친다.

둘째, 항상소득이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으로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노동소득의 흐름에 대한 현재가치의 합계에 의해 결정되며, 항상소비비는 현재소득이 아니라 항상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셋째,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항상소비와 임시소비, 임시소득과 임시소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결과적으로 일생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가계는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의 변동폭을 줄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증가된 임시소득은 저축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으로 감소된 임시소득은 저축을 감소시키게 된다.

2) Ando와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

Ando와 Modigliani(1963)의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가계는 일정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하므로 가계의 전 생애에 걸친 재산을 포함한 소득의 총액 즉 평생소득(permanent income)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첫째 가계의 소비는 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비형태가 일정하거나 약간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의 소득의 흐름은 인생의 초기와 말기에는 낮고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년기에는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계저축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중년기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기와 노년기로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소비수준이 일생에 걸쳐 균등하게 되도록 한다.

셋째 가계는 이러한 일생의 소득 흐름하에 총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즉 일생동안의 이자율과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현재의 평균소비는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 흐름의 현재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의 흐름이 가정생활의 초기와 말기에는 낮고 중·장년기에는 높아서 젊고 생산적인 시기에는 저축을 많이 하고 노후에는 저축된 자산을 이용하여 높은 소비수준을 향유하려 한다는 생

애주기가설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경기변동에 따른 가계저축률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가계의 소득수준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중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가계저축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 금융정책의 건실한 운용과 금리인하, 구매가격 안정 등의 정책적 노력과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한자리 숫자를 유지하였다. 안정된 경제성장이 지속됨으로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하여 저축률이 1982년 24%에서 1984년에는 30%로 높아졌다(남상석, 1995).

〈표 1〉 우리나라 가계저축률

(단위 : %)

연도	가계저축률
1982년	24.4
1983년	7.6
1984년	29.9
1985년	29.8
1986년	33.7
1987년	37.3
1988년	39.3
1989년	36.2
1990년	35.9
1991년	36.1
1992년	34.9
1993년	35.2
1994년	35.4
1995년	36.2
1996년	34.8
1997년	33.4

자료 : 한국인의 사회지표, 통계청 1998.

· 국민계정기준 가계저축률

· 저축률 : 저축액/가처분소득 × 100

이러한 추세로 1980년대 후반에 국제금리의 하락, 엔화의 강세, 원유가격의 하락 등 3저 현상,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힘을 얻어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경제성장률이 11%를 상회하였고 저축률도 36%까지 증가하였다. 소득은 저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나라 경제가 흑자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저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서구문화의 확산과 교통통신의 발달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산됨으로써 물질적·과시적 소비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증가가 둔화되면서 저축률이 다소 하락하게 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반도체, 철강 등의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축률은 35%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인해 1997년 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IMF구제금융지원을 받게 되었고 실업률의 증가와 소득감소 등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재정경제부, 1998).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계저축률은 경기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1) 소득

저축은 소비되지 않은 소득의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과 저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득이 저축의 주요 변인임을 밝힌 연구는 많은데, Davis와 Schumm(1987)은 가계소득, 자가소유여부, 저축동기 등의 변수가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저축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다.

박순희(1985)는 서울시 주부를 대상을 저축행동이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수준, 직업, 결혼지속년수,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등의 변수와 저축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득은 저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저축률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저축구조와 저축률을 분석한 연구에서 보먼(유혜진, 1986) 소득의 증가에 따라 저축액이 높아졌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저축률도 상승하였다.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강해경(1990)은 월평균 가계소득이 저축, 투자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합리적인 저축, 투자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김인숙(1993)의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및 직업, 가계소득, 주거형태에 따른 가계의 저축률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은 가계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남지역의 도시가계금융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자산선택행동이 관한 실증적 연구를 보먼(이정현, 1994), 하위계층의 저축률이 가장 낮았고, 200만원 이상의 상위 계층은 평균저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저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이 높아지는데 이는 다른 어느 변인보다도 소득이 저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말한다.

2) 가구주 연령

가정은 자녀의 출산·학교입학·졸업·혼인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이 변하게 된다. 이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사건이며 이러한 생활사건은 소비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항상 소비를 충족시킬 만큼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소비를 위해 저축을 한다. 따라서 가계저축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다르게 되며 가정생활주기의 대리변수로 가구주의 연령을 택하고 있다(이명훈, 1985; 양세정·이영호, 1996; 양은진, 1998).

백설희(1984)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인 집단에서 가계저축률이 가장 높았고, 40대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50세 이후에 다시 상승하였다. 즉 30대에는 주택마련자금을 위해 저축률이 가장 높다가 40대 이후에는 자녀의 교육과 용돈 등을 위한 비용으로 가계의 지출이 점점 증가하

여 저축률이 낮아졌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자녀의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남으로서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고정훈(1993)의 연구에서는 저축률이 30-34세에서 가장 높고, 45-49세에서 가장 낮다가 50대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30-34세의 저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30대 초반의 경우 자녀가 어려 교육비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반면 45-49세에서 저축률이 낮다가 50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데 이는 교육비 부담이 줄고 노후생활을 대비한 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가계금융이용실태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저축 결정요인을 규명한 양세정과 이영호(1996)의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저축액은 점차 낮아졌으며, 자녀교육비가 절정을 이루는 50대 가구의 경우 20대 가구보다 저축액이 적었다. 평균저축률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낮은 것을 나타냈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양육비 지출이 증가함과 동시에 노년기 가구의 경우 자산축적의 목적이 약화되기 때문에 저축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가계의 저축행태를 가구특성에 따라 분석한 양은진(1998)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한계저축성향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 우리나라의 경우 생애주기설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4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지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저축률은 가구주 연령 20대와 30대일 때 가장 높고, 40대, 50대에는 자녀교육비와 혼인비용의 부담으로 감소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자녀를 위한 지출이 줄어들고 은퇴기를 위한 준비로 인해 저축률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적어 저축할 여력이 없는 20, 30대와 60대 이상의 저축률은 낮아지고, 소득이 많은 40, 50대의 저축률은 높아진다는 생애주기설과는 반대의 패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자녀결혼자금, 주택마련자금 등의 특이한 현상 때문에 생애주기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구원수

가계의 가구원수는 가계소득과 더불어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축결정의 주요한 변수라고 본다.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김인숙, 1993)에서는 가구원이 한명씩 증가할 때마다 가계저축률이 9%씩 감소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계저축률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저축률과 가계특성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고정훈, 1993) 2인 가구는 저축률이 19%인 반면 6인 이상 가구는 12%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기정(1994)이 가계특성 변수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는데 가구원수는 저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구원수가 한 명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이 0.3% 정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가구원수가 저축의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대가족인 경우는 취업인구의 증가로 인해 가계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나 소득의 증가보다 소비지출의 증가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도시가계의 저축 및 자산선택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정현(1994)은 가구원수와 저축률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저축률이 감소하였는데, 즉 2인 가구는 저축률이 27%인 반면 6인 이상 가구는 18%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률이 감소된다고 보기보다는 자녀가 1-2명인 가족은 연령이 낮고 자녀수가 3-4명인 경우는 연령이 40-50대이므로 교육비, 생계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 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계특성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의 변화는 어떠한가?

〈2-1〉 소득계층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의 변화는 어떠한가?

〈2-2〉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의 변화는 어떠한가?

〈2-3〉 가구원수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의 변화는 어떠한가?

2.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1982년부터 1998년까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의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통계청 도시가계조사대상은 근로자가구이며, 가구주의 연령은 근로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악을 위해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1982년부터 1998년도까지 모든 금액은 1998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조정된 실질금액이다.

연도별 저축률, 소득계층별 저축률,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가구원수별 저축률을 구한 뒤 Excel Program을 이용하여 변화추이를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냈으며, 모든 자료의 분석은 SA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용어의 정의

1) 저축률

본 연구에서 저축률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저축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저축률} = \frac{\text{가처분소득}(\text{소득}-\text{비소비지출})-\text{소비지출}}{\text{가처분소득}} \times 100$$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이며 비소비지출은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타가구를 위한 생활보조금이다.

소비지출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 등의 수입을 위한 지출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을 합한 것이다.

2)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주 연령에 크게 5단계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20-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59세 이하, 60세 이상 등 5단계로 나누었다.

3) 소득

본 연구에서는 소득을 가구주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와 자영으로부터의 순수입 및 사업이윤과 부업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 이전소득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소득의 합계로 본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저축률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 하위 25%를 하층, 그 다음 25-50% 중·하층, 50-75%를 중·상층, 상위 25%를 상층으로 명명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조사대상가구 중 20대 가구는 82년에 약 31%이던 것이 98년에는 약 16%로 감소하였고 50세 이상 가구는 82년에 약 9%이던 것이 1998년에는 약 20%로 증가하여 가구주 연령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998년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조정된 실질금액이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가구는 82-87년까지 90% 이상이었으나 1992년에는 17.5%, 1998년에는 3.8%로 줄었다. 1998년에는 220만원 이상 가구가 약 18%가 되었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수가 2인, 3인, 4인이 되는 가구는 큰 변동이 없으나 5인이상인 가구는 1982년에 약 38%이던 것이 1998년에는 24%로 줄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도	분석 가구 수(N)	가구주연령(%)					월평균 가계소득(%) (단위 : 만원)						가구원수(%)					취업원수(%)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59세 이하	60세 이상	50미만	50 -100	101 -150	151 -200	201 이상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1인	2인	3인	4인 이상	
82년	3,017	30.9	38.4	22.0	7.6	1.1	99.4	0.6	.	.	.	10.5	20.2	30.6	20.8	17.9	78.2	19.0	2.4	0.5	
83년	3,486	30.8	38.3	21.7	8.1	1.1	98.2	1.2	.	.	.	12.1	19.9	31.1	20.5	16.4	77.4	19.2	2.8	0.5	
84년	4,686	31.3	37.3	22.4	7.9	1.1	98.3	1.7	.	.	.	11.1	21.4	31.1	21.3	15.1	77.2	19.8	2.6	0.4	
85년	5,142	29.1	39.4	21.7	8.6	1.1	97.2	2.8	.	.	.	12.6	20.9	32.4	21.0	13.1	73.9	22.2	3.3	0.5	
86년	5,223	28.5	39.2	22.0	9.3	1.1	95.7	4.2	0.1	.	.	14.0	21.7	31.8	19.9	12.5	70.2	25.4	3.8	0.6	
87년	5,081	27.2	40.8	21.1	9.5	1.3	91.6	8.3	0.1	.	.	12.7	23.0	34.8	19.1	10.4	67.3	27.7	4.1	0.9	
88년	5,846	24.1	42.5	22.5	9.6	1.3	83.3	16.6	0.1	.	.	12.2	23.9	36.0	17.5	10.3	66.2	28.4	4.4	1.0	
89년	3,980	24.2	43.8	21.6	9.0	1.4	74.8	24.6	0.5	.	.	13.6	24.1	37.4	15.9	8.9	66.6	28.3	4.1	1.0	
90년	3,906	21.8	45.6	21.6	9.5	1.4	54.8	44.1	1.0	0.1	.	12.1	25.3	38.1	16.5	8.0	65.1	29.2	5.0	0.8	
91년	3,584	20.6	44.6	22.6	10.4	1.8	29.6	66.4	3.7	0.2	0.1	12.9	25.4	38.9	15.3	7.4	63.8	30.4	4.9	0.9	
92년	3,590	18.6	45.9	22.8	10.8	2.0	17.5	71.3	9.9	0.9	0.4	13.3	24.5	40.3	15.1	6.8	66.8	28.9	4.1	0.8	
93년	5,993	18.3	42.4	23.6	12.6	3.1	12.5	67.8	16.3	1.8	1.6	12.8	25.5	40.3	14.8	6.6	64.4	30.0	4.7	1.0	
94년	3,995	19.2	43.0	22.2	11.7	3.9	7.8	54.6	29.4	4.6	3.7	16.5	26.5	39.0	12.5	5.4	62.3	31.9	4.6	1.3	
95년	4,013	17.9	40.8	23.1	13.7	4.4	4.3	38.3	39.3	9.7	8.4	17.0	26.2	39.6	12.7	4.5	58.4	34.5	5.8	1.2	
96년	3,914	17.3	39.1	24.5	14.2	4.9	2.1	25.1	40.4	15.2	17.1	18.1	28.0	38.2	11.3	4.4	57.5	35.5	6.1	0.9	
97년	3,563	16.6	38.6	24.7	14.5	5.7	1.4	18.0	38.8	19.1	22.7	17.9	26.4	40.5	11.1	4.1	56.3	36.3	6.1	1.2	
98년	3,718	15.7	40.2	25.1	14.0	5.1	3.8	27.0	36.7	14.2	18.4	12.1	25.3	38.1	16.5	8.0	61.9	32.7	4.4	1.0	

조사대상가구의 취업원수는 1명인 가구는 82년 78%에서 1998년에 62%로 줄었고, 2인이상인 가구는 82년 22%에서 98년에 38%로 늘었다.

2.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 변화

경기변동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1).

1982년 이후 저축률은 증가하여 87년까지 급격히 상승하였다가 89년에 감소한 후 90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94년에는 저축률이 27.8%에 이르렀고, 98년에는 29.1%로 82년에 비해 50%정도 증가하였다.

1982년 이후 경제안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속에서 물가상승률이 한자리수로 되면서 안정되었고, 이 시기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건설 및 설비투자 지원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김상은 외, 1997).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급속도

로 호전되고, 물가상승률이 3.4%로 낮아졌고, 이와 같은 안정의 바탕위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기회가 확대되었고 국민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하였다. 가계소득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1983년 이후 1987년까지 저축률은 계속 증가하였다.

1986년에 국제금리의 하락, 엔화의 강세, 원유가격 하락 등의 3저 현상과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에 힘을 얻은 한국 경제는 이 해에 처음으로 GNP 4.9%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계저축률이 87년에 25.3%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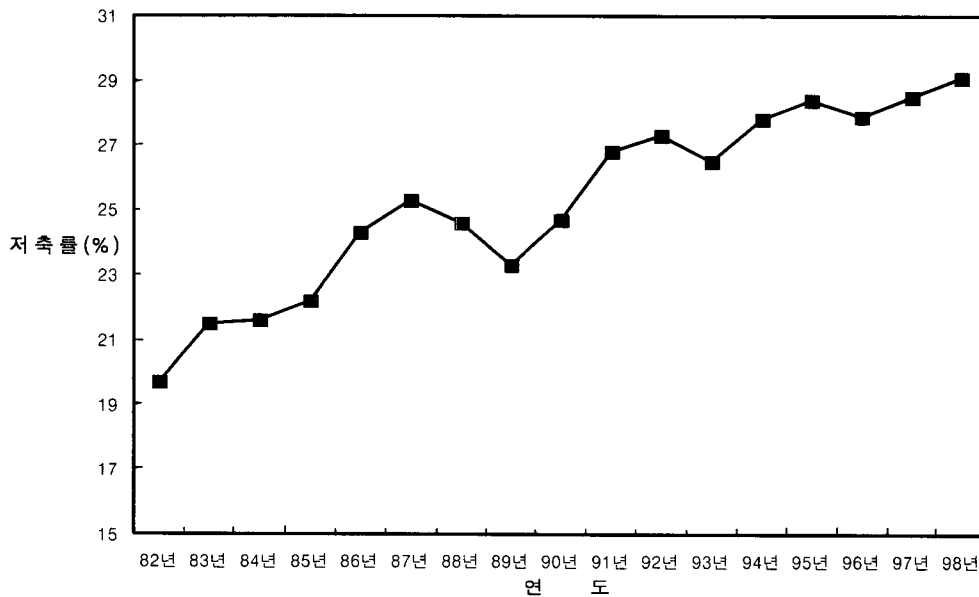
1988년 올림픽직후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1989년에는 전체 무역규모가 전세계 무역량의 21%를 기록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최배근 외, 1997). 그러나 저축률은 부동산 투기, 증권시장의 침체, 과소비 풍조의 확산으로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6.4%로 하락하였고(김기화, 1999), 89, 90년의 저축률도 24% 수준으로 낮아

〈표 3〉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

(1998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단위 : 원, %)

연도	가처분 소득(원)	저축액(원)	저축률(%)
82년	133,400	26,332	19.7
83년	156,342	35,536	21.5
84년	170,925	39,097	21.6
85년	191,098	44,990	22.2
86년	214,810	52,183	24.3
87년	260,131	65,700	25.3
88년	331,196	80,990	24.6
89년	376,928	92,329	23.3
90년	513,566	126,831	24.7
91년	694,600	186,201	26.8
92년	858,702	234,579	27.3
93년	987,757	261,267	26.5
94년	1,184,292	329,454	27.8
95년	1,393,319	395,150	28.4
96년	1,643,201	458,695	27.9
97년	1,813,661	516,373	28.5
98년	1,762,229	512,665	29.1

〈그림 1〉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 변화



졌다. 1991년에는 다시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저축률은 26.8%로 전년도 보다 상승하였다.

1993년에는 다시 경제 침체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제일 낮은 수준이며 저축률은 26.5%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3년말부터 일본 엔화 가치의 강세, 석유가격의 안정, 국제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이 향상되고,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면서 물가상승률이 4.8%로 안정되었고 1994년에는 다시 이전의 저축률(27.8%)수준을 회복하였다.

1995년에는 10,037달러를 기록하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5년 12월에는 선진국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가입하게 되어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최배근 외, 1997), 저축률 역시 28.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6년 반도체, 철강, 유화제품 등의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석유파동시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되어 경기가 다시 침체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가계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저축률은 94년과 비슷한 수준인 27.9%에 머무르

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과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1997년초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잇달으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은행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저하되었고, 1997년 11월에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면서 1980년 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았다.

1998년에는 이러한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8%로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은 6,800달러로 하락하였고(진승수·채창균, 1999), 물가상승률은 7.5%로 높아졌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로는 경제위기에 도 불구하고 97년과 98년의 저축률이 각각 29%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신중적립신탁, 비과세 금융상품 등의 수익률이 높은 저축상품이 많이 출현하였고(매일경제신문, 1997), 가계의 긴축재정으로 소비지출규모는 위축되어도 저축률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MF경제위기는 그동안의 거품소비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가계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보다는 저축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경제성장이 급증한 1982~199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된 88, 89, 93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경기변동 등의 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가계특성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1) 소득계층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저축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이고, 소득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은 <표 4, 그림 2>와 같다.

소득계층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을 4분위로 나누었으며 하위 25%를 하층, 다음 25~50%를 중·하층, 그 다음 50~75%를 중·상층, 상위 25%를 상층으로 명명하였다. 저축률은 소득이 크면 클수록 크고,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저축률은 낮게 나타난다. 소득계층 4분위별로 보면 하층과 중하층의 저축률이 9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91년, 92년 이후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하층의 경우 96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다.

하층의 저축률이 다른 소득계층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소득이 저축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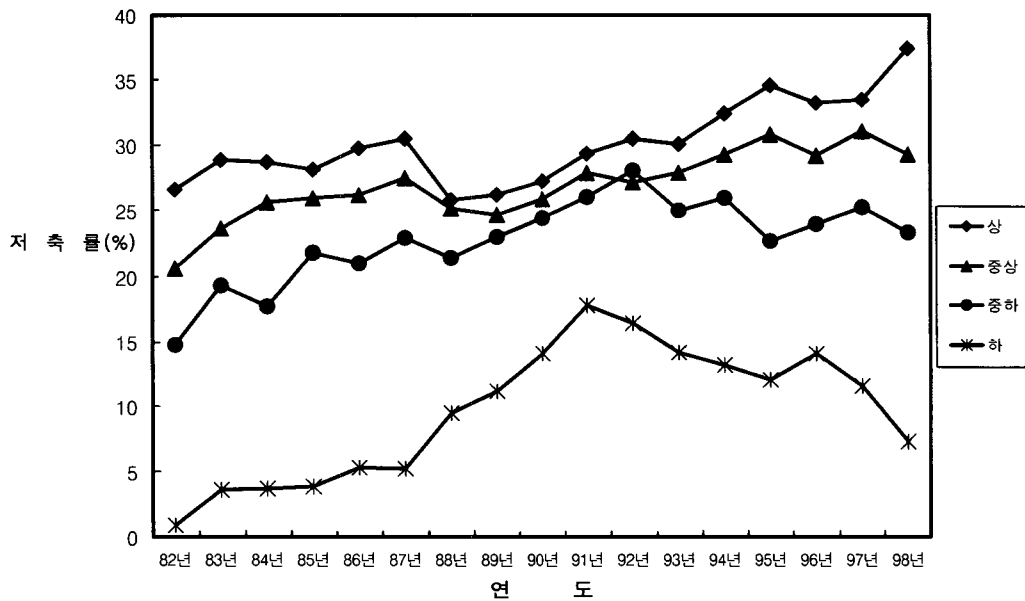
그러므로 소득이 적은 하층의 저축률은 상층의 저축률 보다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82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이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간의 저축률 격차는 점점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소득계층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1998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단위 : 원, %)

연도	하 층		중·하층		중·상층		상 층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82년	552	0.86	14,540	14.7	27,964	20.6	62,255	26.6
83년	2,700	3.6	22,486	19.3	37,561	23.7	79,393	28.9
84년	2,984	3.7	22,583	17.7	45,483	25.7	85,339	28.7
85년	3,534	3.9	31,102	21.8	50,548	26.0	94,806	28.2
86년	5,428	5.3	34,149	21.0	57,584	26.2	111,618	29.8
87년	6,472	5.2	44,959	22.9	73,602	27.5	137,812	30.5
88년	15,513	9.5	54,287	21.4	85,996	25.2	146,277	25.8
89년	22,541	11.2	71,129	23.0	100,149	24.7	175,725	26.2
90년	37,508	14.1	98,882	24.5	138,784	25.9	232,070	27.3
91년	65,380	17.8	144,205	26.1	202,015	27.9	333,204	29.4
92년	73,558	16.4	193,497	28.1	244,576	27.2	426,854	30.5
93년	72,495	14.2	197,291	25.0	289,976	27.9	485,433	30.1
94년	80,258	13.2	243,774	26.0	367,887	29.3	627,149	32.4
95년	86,522	12.1	251,792	22.7	456,335	30.8	786,397	34.6
96년	117,266	14.1	310,274	24.0	510,887	29.2	896,650	33.2
97년	105,929	11.6	368,497	25.3	606,091	31.1	985,500	33.5
98년	58,880	7.3	314,153	23.3	544,494	29.3	1,133,588	37.4

〈그림 2〉 소득계층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2)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은 〈표 5, 그림 3〉과 같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을 보면 20대와 30대는 다른 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저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시기의 저축률이 높은 이유는 20대와 30대의 저축목적이 주택 마련이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교적 지출이 적은 시기이므로 장래지출이 큰 시기를 대비하여 소득에 비해 많은 저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대와 30대의 경우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으므로 다른 연령대 보다 저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0대의 저축률은 매우 낮은 저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50대의 경우 다른 단계와 비교하여 볼 때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40대와 50대의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거나 대학교육 및 취업, 결혼으로 인한 지출이 시작되는 단계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비의 마련, 자녀의 교육자금준비,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주택의 소유와 확대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곧 가족의 지위상승을 의미하며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은 가정생활에 있어 중요한 생활목표가 되고 있다(임정빈 외 7인, 1995).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고액 과외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교육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가구가 26%나 차지하고 있다(윤성인, 1996).

자녀의 결혼비용 측면에서 보면, 혼인비용은 대체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1997)가 실시한 '혼인관행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혼인비용에 대해 부모가 55%, 자녀가 33%를 부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자녀관련비용으로 인하여 40, 50대 가계의 저축률은 20, 30대 가계의 저축률보다 5~10%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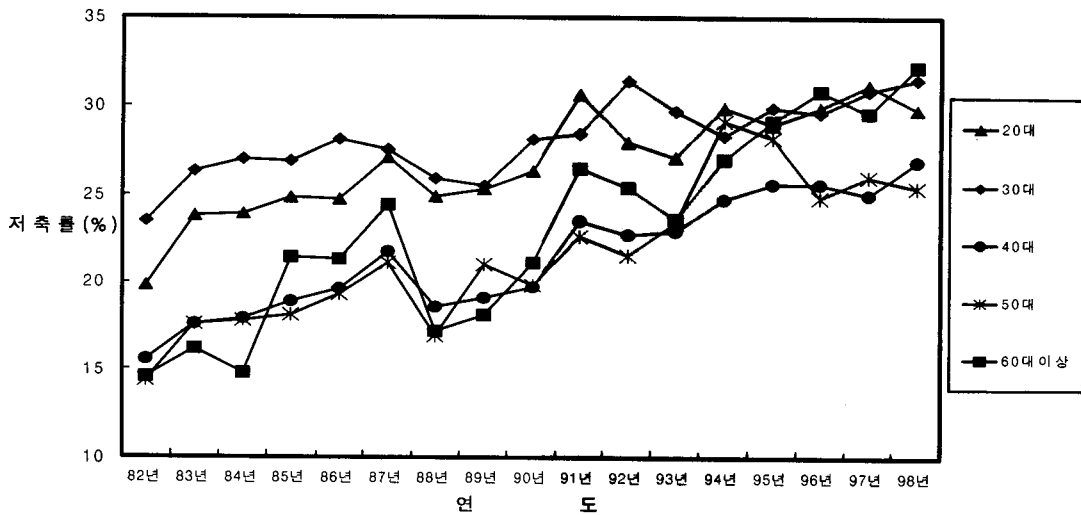
60대 이상의 저축률을 보면, 82년에는 가장 낮은

〈표 5〉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1998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단위 : 원, %)

연도	29세 이하		30~39세 이하		40~49세 이하		50~59세이하		60세 이상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82년	22,638	19.8	32,312	23.5	23,155	15.6	21,520	14.4	17,452	14.6
83년	32,094	23.8	42,801	26.3	29,794	17.6	31,626	17.6	20,363	16.2
84년	34,228	23.9	48,016	27.0	34,347	17.9	34,337	17.8	6,363	14.8
85년	40,644	24.8	52,340	26.9	39,908	18.9	40,088	18.1	35,267	21.4
86년	44,352	24.7	61,284	28.1	46,679	19.6	49,128	19.3	67,890	21.3
87년	60,333	27.1	71,211	27.5	62,409	21.7	65,578	21.1	59,949	24.4
88년	70,194	24.9	85,461	25.9	67,960	18.6	66,004	16.9	49,405	17.2
89년	84,723	25.3	98,125	25.5	87,398	19.1	99,677	21.0	70,302	18.1
90년	111,588	26.3	141,652	28.1	113,683	19.7	124,254	19.8	102,031	21.1
91년	180,358	30.6	190,586	28.4	185,571	23.5	187,203	22.6	146,119	26.5
92년	195,809	27.9	264,342	31.4	215,128	22.7	219,997	21.5	212,256	25.4
93년	226,608	27.1	282,704	29.7	245,902	22.9	284,285	23.4	195,846	23.6
94년	307,659	29.9	325,272	28.3	311,814	24.7	430,878	29.1	277,376	27.0
95년	337,118	28.9	411,689	29.9	373,945	25.6	468,762	28.2	361,211	29.1
96년	419,592	29.9	474,598	29.6	444,010	25.6	474,225	24.8	498,363	30.8
97년	478,177	31.2	544,313	30.8	479,714	25.0	560,856	26.0	484,534	29.6
98년	425,412	29.8	541,735	31.5	515,970	26.9	505,181	25.4	556,395	32.2

〈그림 3〉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다가 93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98년에는 가장 높은 32.2%의 저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노인의 평균 수명이 1970년의 63.2세에서 1995년에는 72.8세로 길어졌고(통계청, 1994), 고령취업자의 비율도 1982년 11.4%, 1997년 16.3%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통계청, 1998), 93년 이후 노년기의 저축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8년에는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98년 29.5%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수가 3명인 가구와 4명인 가구의 저축률은 82년 22.7%에서 98년 약 30%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저축률이 낮은 편이다.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는 93년 이후 97년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늘면서 소득원수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며 98년에 다시 감소한 것은 IMF 구제 금융 경제체제 이후 많은 실직 사태의 결과로 본다.

3) 가구원수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가구원수에 따른 저축률은 <표 6, 그림 4>와 같다. 분석 결과 1992년까지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였으나 1993년부터는 6인 이상가구의 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의 저축률은 82년 20.0%,

V. 결론 및 제언

가계저축은 재정적 목표를 실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소득이 감소할 때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며, 가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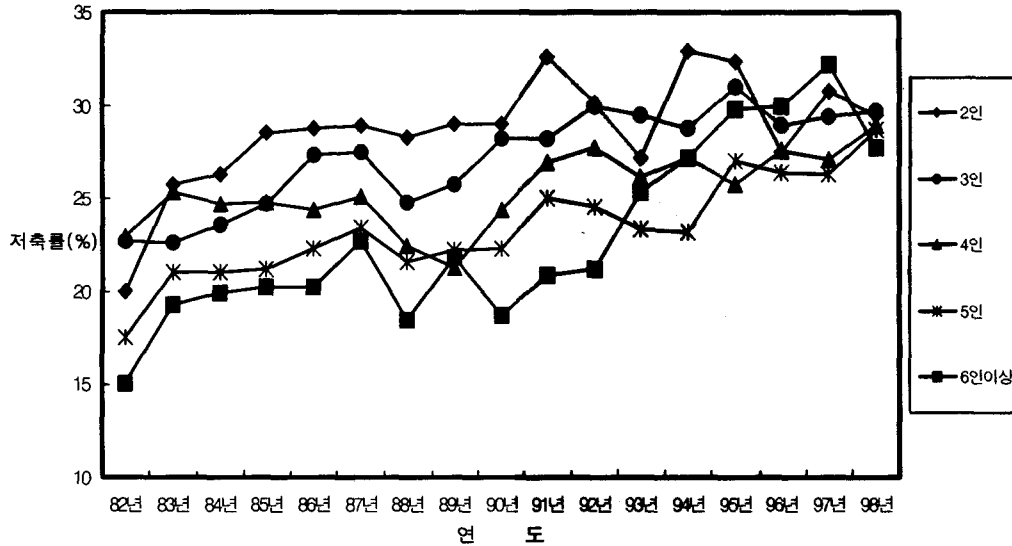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는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이 경기

<표 6> 가구원수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1998년 소비자물가지수기준, 단위 : %)

연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저축액	저축률
82년	20,109	20.0	26,527	22.7	30,393	22.8	26,270	17.5	23,319	15.0
83년	31,125	25.7	29,672	22.6	40,002	25.3	35,814	21.0	37,083	19.3
84년	34,408	26.3	33,866	23.6	42,382	24.7	39,727	21.0	42,331	19.9
85년	43,499	28.5	40,718	24.7	46,843	24.8	44,080	21.2	50,108	20.2
86년	47,119	28.8	51,938	27.3	53,200	24.4	51,917	22.3	56,120	20.2
87년	56,482	28.9	62,742	27.5	65,675	25.1	69,983	23.4	75,666	22.7
88년	70,279	28.3	71,516	24.8	74,961	22.5	84,267	21.6	78,015	18.5
89년	87,316	29.0	91,557	25.7	87,587	21.2	102,517	22.2	116,472	21.8
90년	111,908	29.0	129,223	28.2	127,949	24.4	133,187	22.3	123,281	18.7
91년	173,521	32.6	172,546	28.2	191,993	26.9	201,009	25.0	194,184	20.9
92년	183,073	30.1	228,289	30.0	243,326	27.7	247,393	24.5	234,759	21.2
93년	208,356	27.2	265,036	29.5	264,255	26.1	269,056	23.3	313,132	25.3
94년	323,678	32.9	316,578	28.8	330,854	27.2	315,905	23.2	431,120	27.2
95년	358,393	32.4	410,349	31.0	371,131	25.7	431,871	27.0	553,757	29.8
96년	363,745	27.5	441,224	28.9	480,857	27.6	501,737	26.4	656,604	30.0
97년	451,459	30.8	508,041	29.4	514,842	27.1	559,620	26.3	748,321	32.2
98년	390,406	29.5	489,344	29.7	539,154	28.9	600,977	28.7	695,733	27.7

〈그림 4〉 가구원수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 변화



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등 가계특성에 따라 저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행태와 재정상태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가계재무설계, 재무교육 및 상담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가계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의 저축률은 1982년 이후 증가하여 98년에는 29%로 17년 동안 50%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도별 저축률은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축환경의 변화로 과거 1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불황 등 거시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축이 가계의 재정적 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의 물적자원을 저축을 통해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계경제학자와 재무관리 상담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저축목적 및 계획을 위한 가계재무관리, 저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상담하도록 할 것이며, 금융시장에서는 가계재정 목표에 맞는 다양한 저축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소득계층에 따른 저축률은 전체 연도에 걸쳐 소득이 높을수록 저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이 가계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계저축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가계의 소득수준 향상은 임금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도시가계의 실질소득이 저하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금정책을 통해 저축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세감면, 소득 창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구주 연령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은 20대와 30대에 가장 높고, 40대와 50대에 가장 낮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기에 자녀교육비용이 최고조에 다르고 여기에 자녀의 혼인부담이 더해지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30대에는 자녀수 즉 가족 원수가 적어 저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가계의 경우, 생애 주기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지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소득이 감소되어 저축의 여력도 감소된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60대 이상의 저축률이 82년에 가장 낮다가 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점차 높아져 98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어떠한 재정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들 가계를 대상으로 한 재정관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합리적인 가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저축률을 파악해 본 결과, 가계는 각각의 연령대에서 요구되는 가족원들의 욕구 충족과 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재정계획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계획은 가족이 형성되는 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 하며, 미래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과 보험 등을 이용하여 재정자원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가구원수에 따른 연도별 저축률은 92년까지 가구원수가 1명씩 늘어날 때 마다 낮아졌으나, 93년부터는 6인 이상 가구의 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다. 80년대는 소득원이 가구주로 한정되어 있어 가구원수가 늘어날수록 소비지출이 많아져 저축률이 낮았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가구원수가 증가했음에도 가계의 저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가계에서 가능한 많은 가족이 경제활동을 함으로서 소득원을 늘려 소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저축을 늘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가계의 연도별 저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가계특성변수에 따라 저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행태를 파악하고, 가계의 재정상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의 금전관리, 가계저축을 위한 교육 및 상담자료가 될 수 있고, 저축상품개발 및 저축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득, 가구주 연령, 가구

원수 등의 변수만을 가지고 저축률을 분석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저축률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되는 다양한 가계특성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고정훈(1993), 한국도시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국은경제연구소(1993), 한국인의 소비생활.
- 3) 김광석(1975), 한국가계의 저축행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제4집, 서울 ; 한국 개발연구원.
- 4) 김기화(1999), 거시경제학, 서울 ; 도서출판 흥.
- 5) 김인숙(1993),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6) 남상석(1995), 한국경제반세기, 남상석·차동세·박준경·박우규(편), 한국개발 연구원, 9-16.
- 7) 박명호(1998), 한국의 저축률 결정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백설희(1984), 도시가계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9) 양세정·이영호(1995), 가계저축규모의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4(2), 201~215.
- 10)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 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호, 54~67.
- 11) 양은진(1998), 우리나라 가구특성별 도시가계의 저축행태 분석, 이화여자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유혜진(1986), 우리나라의 저축구조와 저축률,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13) 윤성인(1999),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 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05~122.
- 14) 이정현(1994), 도시가계의 저축·자산선택행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전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임정빈 외 7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Ⅱ) :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5), 115~127.

- 16)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 17) 통계청(1982~1998), 도시가계연보, 각연도.
- 18) 한국개발연구(1997), 우리나라 저축률의 분석과 전망.
- 19) 한국은행(1999), 우리나라의 저축률 추이와 시사점.
- 20) 허경옥 · 백은영 · 정순희(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21) 홍승제(1997), 새로운 가계저축률의 추정과 결정요인 분석, 경제분석, 금융경제연구소.
- 22) 조재호(1995), 한국과 일본의 저축패턴 비교, 한국경제연구, 제1권 1호.
- 23)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 24) Chang, R. Y.(1994), Saving Behavior of U. S. Households in the 1980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45-64.
- 25) Chang, R. Y. & Hanna, S.(1994), Factors Related to Household Saving. *Consumer Interests Annual*, 40, 148~155.
- 26) Heffran, C.(1982), Determinants and Pattern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